

한국과 미국 일간신문의 정정보도 기사 비교연구

조선일보, 한겨레신문, 뉴욕타임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을 중심으로

임양준*

(경성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초빙교수)

본 연구는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를 통해 보도된 정정보도 기사에 대한 특성과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주제별, 유형별, 발생원인별, 그리고 보도방식별로 내용분석을 통하여 정정보도문을 비교분석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미국 신문으로는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된 정정보도 기사는 총 1,736건이었다.

연구결과 두 나라 일간지의 정정보도 기사내용에는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정정보도 전체 기사건수는 미국 일간지에 실린 기사건수보다 약 절반정도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주제 면에서 한국 일간지는 사회(36.0%), 정치(18.3%) 그리고 경제(12.1%) 순으로 정정기사 건수가 많았고, 미국 일간지의 경우 문화(17.4%), 라이프스타일(8.6%), 그리고 스포츠(7.0%) 순으로 오보기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정보도 유형별 분석 면에서 한국 일간지는 이름(26.2%), 사실오류관계(18.1%), 그리고 용어(15.8%) 순으로 정정기사 비율이 높았으며, 미국 일간지는 숫자(33.7%), 철자(12.1%), 그리고 날짜(5.6%) 순으로 오보비율이 높았다. 넷째, 한국 일간지의 경우 정정보도 발생 원인으로는 기사의 확인 소홀로 인한 원인(68.7%)이 가장 주된 원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미국 일간지는 기자나 편집자의 단순실수(51.2%)가 오보기사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정정기사 보도방식 면에서 한국 일간지의 경우 두 종류의 형태만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을 싣고 있으나, 미국 일간지는 6가지의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여 정정보도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정정보도, 언론윤리, 오보발생, 보도의 정확성, 주관적 오류, 객관적 오류

* image@ks.ac.kr

1. 문제의 제기

사건이나 사실과 관련된 직접 당사자가 아닌 언론 수용자들은 언론보도를 통해 그 내용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보도는 단순히 사건의 내용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에 대하여 언론 수용자들에게 그 사건이나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것과 관련하여 무엇을 생각하여야 할 것인가를 제시해 주기도 한다(우병동, 1994). 따라서 언론이 현대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영향은 매우 크고 중요하다.

1990년대 이후 언론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대중사회에 대한 언론의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상당히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¹⁾ 신문이나 방송 등의 언론매체가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며, 사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편향되고 왜곡, 과장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언론에 대한 비판은 언론 기관이 그에게 맡겨진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국민의 신뢰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공중의 불만이 표현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미디어의 발전과 더불어 오보의 발생원인도 매우 다양해졌다. 언론은 사건 현장에서의 속보성 보도, 기자의 미숙성, 언론사간의 경쟁,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임병국, 1990), 그리고 취재원에 의한 오보기사 제공 등 오보가 발생할 가능성은 어디에든 존재한다. 이와 더불어 최근에 온라인 저널리즘과의 경쟁 신문사 간의 부수확장, 그리고 시청률 상승을 위한 무한경쟁으로 인하여 정확한 보도를 바탕으로 한 보도의 질적 향상은 생각할 여유가 없어졌다. 그 결과 특종과 속보성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이로 인하여 오보의 발생확률도 매우 높아졌다.

1) 한 조사연구서는 “언론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평가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 수행에 대한 평가는 평균 2.75점으로, 1998년 3.19점, 2000년 3.01점에 비해 해마다 낮아졌다”고 밝히고 있음(『2002 언론 수용자 의식조사』, 한국언론재단, 2002, p.33).

언론에 의한 오보는 피해 당사자에게 큰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오보를 낸 해당 언론사에게도 큰 피해가 돌아간다. 언론의 오보는 피해 당사자나 그 가족들에게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 뿐만 아니라 언론의 막강한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미 훼손당한 피해 당사자의 명예와 신용은 원상태로 만회하기는 매우 어렵다.

언론의 오보는 언론사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기도 한다. 그린버그와 렌잔스키(Greeberg & Razinsky, 1966)는 언론 메시지의 구두점, 철자법, 문법오류에 대한 독자의 반응을 연구한 결과 이런 오류가 언론에 대한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했다. 싱클테리와 카레이지(Singletary & Carrage, 1980)는 주관적 오보가 독자의 메시지에 대한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뉴스원의 신뢰도에 대한 평가에서도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러한 결과, 미국 국민 3명 중의 1명이 언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옥조, 2001). 미국 여론조사기관인 퓨 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는 미국 전국 언론인 54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0% 이상이 독자들의 낮은 언론 신뢰도를 현재 미국 언론이 직면한 최대의 도전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류재훈, 2004).

현대 사회에서 기자들과 보도대상이 된 사람들 사이에 보도내용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끊임없는 다툼도 그 기저에는 기사내용의 사실성(factuality)에 맞춰져 있다. 객관성 혹은 공정성과 함께 기사 정보의 사실성은 기자 직업윤리의 주요 가치일 뿐만 아니라, 언론자유를 보장하는 대부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보도에 대한 법적 제재의 핵심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송용희, 2005).

그동안 일간신문의 오보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이들은 주로 오보내용과 효과연구(Berry, 1967; Singletary, 1977; 차배근, 1989; 임병국, 1990)와 오보 발생의 구조적인 원인(이효성, 1992; 우병동, 1994)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외국 일간지 기자들이 자주 범하는 오보의 특성을 비교분석한 실증적인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언론에 대한 문화와 사회적 인식이 각각 다른 한국 일간신문과 미국 일간신문 기자들에 의해 오보가 발생하는 특성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오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의 신문지면의 내용과 구조적인 차이에 대한 특성상 설정된 분석 유목을 가지고 두 나라 일간지를 비교 분석하는 일은 다소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정 기사를 통해 언론의 윤리적인 면에서 앞서있으며 실기 위주의 교육을 받은 미국 기자들²⁾과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은 한국 신문기자들이 자주 접하는 오보 유형과 발생원인, 그리고 보도방식의 차이를 파악해 서로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신문기자들이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개선방향을 모색할 수 있겠다. 더불어 미국 일간지와 한국 일간지의 오보에 대한 문제점과 특성을 비교 연구한 선행연구로서, 이 연구에 대한 결과는 언론계 현업에 일조할 수도 있겠다.

2. 이론적 배경

1) 오보에 대한 개념정의

언론의 잘못된 보도를 지칭하는 오보에 대한 정의는 다분히 자의적이다. 즉 오보에 대한 관점에 따라 단순과실에 의한 보도만을 오보라고 부르기도 하며 기자의 고의성에 상관없이 잘못된 보도를 통칭하여 오보³⁾라고 말하기도

2) 미국에서 신문기자가 되는 방법은 우리나라처럼 전국 규모의 언론사 입사시험은 없으며 대신 철저한 실기 위주의 대학 교과과정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 인턴 실습을 위주로 한 교육과정을 거쳐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언론사의 인터뷰를 통과해야 한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적으로 대학을 졸업한 후 지원하고자 하는 언론사가 주최하는 전국 규모의 언론사 입사시험을 통과해야만 한다.

3) 오보라는 뜻과 의미를 나타내는 범위는 나라마다 차이가 다소 차이가 있다. 독일에서는 오보는 'Ente'라고 불리는데 뜻은 허위보도, 날조보도의 뜻을 가지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오보를 'le Canard'라고 하며 이는 '헛소문', 또는 유언비어의 뜻이다(정진걸, 1997). 미국의 경우 오보를 지칭하는 술어는 없고, 그 대신 구체적인

한다(최동섭, 1998). 차배근(1987)은 오보란 언론시층의 해명, 정정, 취소, 사과 등이 요구되는 그릇되었거나 틀린 보도기사라고 주장하였다. 임병국(1990)은 자신의 논문에서 오보란 사실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를 말한다고 정의했다. 이렇게 볼 때, 잘못된 보도란, 첫째, 보도문 중에 무엇이 잘못 되었나, 둘째, 기자가 기사를 작성할 때 고의성이 있었느냐, 셋째, 그 기사가 보도 대상자(개인, 집단, 사회, 국가 등)에게 피해를 주었느냐 등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고 설명하였다.

한편 로렌스와 그레이(Lawrence & Grey, 1964)는 오보를 객관적 오보(objective error)와 주관적 오보(subjective error)로 나누었다. 그들은 객관적 오보란 단순사실과 관련된 것으로 날짜, 장소, 이름, 시간 등이 취재, 편집, 보도과정에 참여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의 실수에 의해 잘못 보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관적 오보는 게이트키퍼의 고의성이 개입되어 기사내용의 불균형 또는 독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김종현(2000)은 객관적 오보는 단순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므로 항상 시간에 쫓기는 기자들에게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주관적 오보에는 고의성이 개입되는 죄질이 더욱 나쁘고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왜냐하면 주관적 오보는 시청자나 독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우병동(1996)은 뉴스원과 기사사이의 견해나 입장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주관적(subjective) 오보와 사실적(factual) 오보로 이분했다. 객관적인 사실이 틀렸을 경우 이를 사실적인 오보라고 하며, 보도를 접하는 뉴스원과 기자, 혹은 수용자들 간에 이해나 해석의 차이는 주관적인 오보라고 규정하였다. 최동섭(1996)은 주관적 오보에는 속단, 성급한 추리, 무식, 기사

내용에 따라 'false report', 'incorrect report', 'fraud report' 등으로 부르고 있다. 그러나 언론인들은 'mistake'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이 말에는 허위 및 날조 보도뿐만 아니라 과장보도, 불공정보도, 판단이나 해석상의 착오에 따른 오도보도(misleading report), 그리고 인쇄과정에서의 기계적 실수에 따른 오보(objective mistake) 등 모든 잘못된 보도가 포함되어 있다. 즉 가볍게 윤색된 뉴스에서부터 의도적으로 날조된 뉴스보도까지 포함하고 있다(차배근, 1989).

를 키우려는 욕심 등으로 사소한 사실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과장보도와 객관적 사실을 재료를 자신이 뜻하는 방향으로 기사를 몰고 가는 왜곡보도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그는 이해 당사자의 한쪽 편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파보도와 객관성 그리고 주관성이 결여된 불공정 보도도 주관적 오보에 포함된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오보의 개념 정의를 새롭게 하지는 주장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의 오보는 잘못된 보도로 인해서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 보도를 말했으나, 실제로는 잘못된 보도가 당사자에게 피해를 주는가의 여부, 그리고 고의인가 아니면 과실인가의 여부와는 무관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이에 대한 개념과 용어정리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오인환, 1982).

이처럼 언론의 오보는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그리고 보도대상자와 기자의 입장 차이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 결국 여러 가지 오보에 대한 정의를 종합해보면, 우선 사실과는 다른 잘못된 보도이며, 진실하지 못하고, 정정의 소지를 분명히 남기는 보도라고 할 수 있겠다.

2) 언론과 오보

신문보도에 있어 정확성은 언론사의 기본사명이다. 정확하지 못한 보도만큼 신문이 공신력을 헤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독자들은 신문의 보도가 당연히 정확한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그 때문에 보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 밝혀질 때는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는 크게 손상되기 때문이다(이행원, 1989). 신문의 정확성은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에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제4조)을 강조하고 있다. 또 실천요강에 “보도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제3조)으로 규정한 것도 정확한 보도를 위한 강조이다. 그러나 모든 신문사의 기자들이 보도의 정확성을 아무리 강조한다손 치더라도 보도기사에 대한 오보는 피할 수가 없다.

오보에 대한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임병국(1990)

은 오보의 발생원인으로 크게 두 가지, 즉 ① 언론 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과 ② 정보의 수집·전달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분류하였다. 언론 산업의 속성에 의한 원인으로는 마감시간,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 등을 언급했고,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언론사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⁴⁾ 조맹기(1998), 우병동(1996), 맥브라이드 보고서(MacBride Commission, 2003) 등은 오보발생의 구조적 원인에 주목한다.

조맹기(1998)에 의하면, 언론조직은 수용자에게 게이트키퍼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며, 결국 기사내용은 언론조직의 조직적 관행에 따라 윤색, 왜곡됨으로써 오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언급한 언론관행에는 게이트키퍼뿐만 아니라 출입처제도, 촌지, 특종을 위한 치열한 경쟁 등도 포함됨으로써 언론조직이 오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한편 우병동(1996)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 정보의 확인과정, 정보의 해석 및 기사작성과정, 그리고 편집 과정 등 여러 가지 과정과 시점에서 정보의 내용이 원래의 사실과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밝혔다. 그는 오보의 발생 원인으로 기자의 전문성 부족, 사실 확인 소홀, 과장과 확대 보도, 자의적인 정보선택과 해석, 그리고 의도와 감정의 개입 등을 지적하며 오보생성의 구조에 주목한다. 뉴스원이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거나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기자 쪽에서 만일 뉴스원의 의도와 이해를 적절히 판단하고 이를 차단할 전문성을 가지지 못하면 뉴스원의 의도는 그대로 기사에 개입하게 된다. 또한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도 오보가 일어나며 정보가 기사화되는 과정에서 정보를 자의적으로 취사

4) 임병국(1990)은 오보가 발생하는 언론사 내부적 요인으로는 취재기자의 잘못, 편집기자의 잘못, 그리고 전달과정의 기술적 잘못이며, 언론사 외부적 요인으로는 외부의 발표나 보도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보도하는 경우, 권력의 간섭, 광고주의 간섭, 통신사의 통신문 게재, 그리고 취재원(news sources)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정보제공 등으로 오보가 발생한다고 주장한다(pp.13~14).

선택하여 뉴스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축소하거나 자신의 필요에 의해 사실을 과장하고 확대하는 경우 오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맥브라이드 보고서(2003)는 오보가 발생하는 이유로 다음의 5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많은 언론인들이 대중의 취향과 관심사가 무엇인지 눈치를 보고 있다. 둘째, 뉴스를 받아들이는 수용자의 태도나 인식이 사람마다 다르다. 셋째, 많은 전문적 전달자들이 국수주의적 태도나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 외국 뉴스를 선택, 해석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왜곡시킨다. 넷째, 언론기관의 통제 및 기사선택과정이 뉴스의 내용이나 중점 또는 표현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다섯째, 기술적으로 신문지면의 제약이나 방송시간의 제약으로 전달내용이 빈곤해지고 왜곡된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개인과 구조의 관계를 좀 더 세분화시켜 개인적 차원, 조직적 차원, 사회적 차원에서 오보의 발생 원인을 파악할 수도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기자의 보도 기술적 배경, 보도 지식적 배경, 보도 윤리적 배경, 그리고 보도 관행적 배경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분류는 다시 기사를 취재·보도하는데 필요한 기자의 전문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결국 기자의 전문성이 결여되거나 부족할 경우 발생하는 오보가 개인적 차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오보 발생원인이다. 조직적 차원에서는 기자가 기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조직 내적인 유혹과 영향력이 오보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이다. 사회적 차원은 오보의 원인이 조직에 있으며, 결국 조직은 사회의 반영이라는 점에서 기자에게 가해지는 여러 가지 사회적 통제가 오보발생의 원인이라는 것이다(서정우, 2000).

더욱이 최근에는 세계적인 온라인 저널리즘의 확대와 발달로 언론매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가 급팽창했다. 온라인 저널리즘은 인터넷의 신속성 보도라는 장점이 오히려 오보를 양산할 수 있는 단점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활자만 전달하는 종이신문과는 달리 온라인 저널리즘은 텍스트를 기본으로 하되, 사진(플래시 포함), 그림, 동영상, 오디오 등을 망라한 복합서비스가 온라인 보도는 더욱 많은 오보를 양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다.

일간지의 오보로 인한 피해는 독자들의 다양한 인권피해로 나타난다. 오보

의 일반적인 피해 유형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⁵⁾ 사생활 침해,⁶⁾ 그리고 신용훼손⁷⁾이다. 언론사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법적 소송은 계속 증가 추세이다.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신청된 사생활 침해 소송을 살펴보면 1981년 23건에 불과하던 신청건수가 국민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1990년에는 136건으로 증가했으며, 1999년에는 619건으로 급증했다가 2003년에는 291건으로 다시 줄어드는 것으로 집계되었다(장호순, 2004). 이와 더불어 피해자에 대한 언론사의 신용훼손에 관한 중재 신청건수도 1980년에 15건에 불과했으나 1994년에 114건으로 최고치를 보였고, 2003년에 다시 4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장호순, 2004).

그 동안 언론사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법적 소송이 최근 들어 다시 줄어드는 주된 원인 중의 하나는 오보구제를 위한 언론사의 열린 정책으로 풀이된다. 즉 오보를 낸 언론사들이 중재신청이나 법적 소송으로 발전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언론사자체 구제에 적극적이기 때문이다. 비록 오보로 피해를 입은 독자들이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법적 소송비율은 낮아졌지만, 일간신문을 통해 발생하는 오보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뿐만 아니라 담당 기자와 해당 언론사에 대한 독자의 신뢰성이 훼손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렇다면 신문보도에서 오보가 발생하는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는가?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언론인들이 스스로 오보의 가장 큰 원인이 기자 개인에게서 비롯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재단(2003)이 한국 현직언론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

5)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4항은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헌법 제17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여 사생활에 관하여 하나의 권리로서 헌법적 보장을 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이 규정이 말하는 사생활의 비밀이나 서구제국이 입법화하고 있는 프라이버시(privacy)에 상응하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김성남, 1988).

7) 형법 제313조에서 신용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서 사람의 신용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면 오보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에 ‘사실에 대한 미확인 또는 불충분한 취재’(52.0%)와 ‘기자의 부주의’(23.0%) 등 기자 개인의 잘못을 꼽는 응답자가 75%에 달했다.

신문이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기자는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으며 현실적으로 뉴스를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성을 헤칠 수 있는 갖가지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로 인한 독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사에 대한 내용을 반복 확인하는 것이 정확성을 보장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3.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 연구문제

이 연구는 언론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일간신문 지면에 대한 구조,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보도 문화가 각각 서로 다른 언론환경에서 한국 신문기자들과 미국 신문기자들에 의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일간지 오보에 대한 문제점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일간지 정정보도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국가별 정정보도 기사 비율의 차이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2: 국가별 정정보도 기사 주제의 차이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3: 국가별 정정보도 기사 유형별 차이는 무엇인가?
- 연구문제 4: 국가별 오류기사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 연구문제 5: 국가별 정정보도 기사 보도방식의 차이는 무엇인가?

2) 연구방법

(1) 분석대상과 기간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에 실린 정정보도 기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그리고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The New York Times, NYT)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The San Francisco Chronicle, SFC) 네 개의 일간신문에 게재된 정정보도문을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위의 신문들을 선정한 이유는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일간지로서 지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발행부수,⁸⁾ 신문사 소유구조,⁹⁾ 그리고 주 구독자층¹⁰⁾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뉴욕타임스』¹¹⁾와

-
- 8)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관계자들은 자사의 발행부수는 회사 대외비라 정확한 발행부수를 공개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조선일보』는 2,377,000부(2002년 기준)라고 주장하였지만, 무가지 등을 제외한 비공식적인 유료판매부수는 약 170만 부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한겨레신문』은 35만 부(2006년 기준) 정도라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전화통화, 2006년 8월 9일; 『한겨레신문』 편집기획팀장 이메일 답변, 2006년 8월 10일).
- 9) 주지하다시피, 『조선일보』는 방우영 명예회장에 이어 방상훈 회장을 중심으로 한 방 씨 일가가 지배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전통적인 신문재벌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며, 『한겨레신문』은 김기영 외 61,457명(2006년 기준)이 분산 소유하고 있는 국민주 신문이다.
- 10) 김나연(2003)은 『조선일보』는 신문사주의 이념적 성향인 보수주의적 성향을 가진 매체로 한국 내 최대의 발행 부수를 갖는 신문으로 월평균 가계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구독률과 열독률이 높은 신문이다. 그리고 『한겨레신문』은 진보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하였다. 『한겨레신문』은 “대학생이 선호하는 신문, 대학생 열독률 제1위라는 통계가 10년째 불변”이라는 여론조사에서 보듯, 주 독자층은 20~40대가 주로 많이 구독하는 신문이다(리영희 외, 2005. 6.4). 『한겨레신문』은 35만 부(2006년 기준) 정도라고 주장하였다(『조선일보』 편집부국장 전화통화, 2006년 8월 9일; 『한겨레신문』, 28면).
- 11) 심훈(2004)은 “『뉴욕타임스』는 객관성과 공정성을 앞세운 보도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엘리트 언론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 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까지 신문에 대한 지명도가 높아 미국 일간신문을 연구하는 미국 내외 학자들이 자주 분석대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언론매체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¹²⁾도 발행부수와¹³⁾ 주 독자층, 그리고 미국내외적인 신문의 영향력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스』, 그리고 『한겨레신문』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신문사 서로간의 비슷한 발행부수¹⁴⁾도 네 신문을 선택한 기준이 되었다.

분석 대상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게재된 ‘바로 잡습니다’와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의 정정보도문¹⁵⁾으로 한정하였다. 자료 수집은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한국언론재단의 ‘카인즈’를 이용하여 ‘바로 잡습니다’의 색인을 이용하였고,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두 신문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수집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 7월 1일부터 200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의 정정보도문을 통해 보도된 모든 정정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시기를 1년으로 정한 이유는 두 나라 일간신문을 통해 보도된 다양한 정정보도 사례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2006년 6월 30일까지로 시기를 정한 이유는 최신의 정정보도

-
- 12)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동부의 『뉴욕타임스』와 지리적으로 대조적인 미국 서부지역이며, 정치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도시 중의 하나인 샌프란시스코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신문이다. 특히 전통적으로 지역적 뉴스, 문화 그리고 오락비평(entertainment criticism)을 강조한 보도로 널리 알려진 신문이기도 하다(www.wikipedia.com). 더불어 비록 지역신문이기는 하지만 미국 내 일간지들 중 발행부수 면에서 상위 20위로 저명도가 높다(출처: 2006 미국 Audit Bureau of Circulation).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을 분석대상으로 정한 또 다른 이유는 자료의 접근성이 용이했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와 『크로니컬』을 제외한 대부분의 미국 일간지들은 정정보도 기사를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회사 규정상 오보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과거 2~4주 사이에 발생한 정정보도만을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연구 자료로서의 분량이 적당하지 않았다.
- 13) 발행부수: 『뉴욕타임스』: 1,683,855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451,504부(출처: 2006 미국 Audit Bureau of Circulation).
- 14) 『조선일보』의 발행부수 중 무가지 등을 제외한 비공식적인 유료판매부수인 약 170만 부와 『뉴욕타임스』의 공식 발행부수인 1,683,855부와 비교하였다.
- 15) 한국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에 실리고 있는 정정보도문은 <바로 잡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고 있고,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에서는 <Correction>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고 있다.

사례를 고찰하기 위해서이다.

분석된 기사의 양은 『조선일보』의 정정보도 기사가 248건, 『한겨레』 97건, 『뉴욕타임스』 446건,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945건 등 총 1,736건이었다.

(2) 분석유목 설정

정정보도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주 유목으로 ① 정정기사 비율, ② 정정기사 주제, ③ 정정보도 유형, ④ 발생원인 그리고 ⑤ 정정보도방식 등 모두 5가지로 분류하여 조사하였으며, 주 유목을 바탕으로 다시 하부 유목을 설정하였다. 예를 들어, ‘정정기사 주제’를 중심으로 한 하부 유목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제’, ‘라이프스타일’ 등 10가지 세부 유목으로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정정기사 유형은 객관적 오류와 기술적 오류로 나누었다. 객관적 오류의 세부유목은 ‘철자’, ‘이름’, ‘날짜’, ‘숫자’ 등 13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였고, 기술적 오류는 ‘캡션’, ‘사진’, ‘크레딧’ 등 5가지 세부항목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또한 발생원인으로는 ‘기사작성 및 편집상의 오기’, ‘확인소홀’ 그리고 ‘전문성 결여’ 등 13가지로 분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보도방식은 10가지 하부유목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코더간의 신뢰도 계수는 0.91로 나타났다.¹⁶⁾

16) 신뢰도 측정을 위해 대학원생 2명으로 구성된 코더들의 도움을 받아 표집 추출된 정정보도 기사를 분석하였다. 신뢰도 측정은 코더들에게 분석유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함께 150건의 정정보도 기사를 무작위로 선정하여 측정하였다. 홀스티(Holsti) 신뢰도 공식을 이용한 결과, 코더 간의 신뢰도는 정정기사 0.93, 보도유형 0.94, 발생원인 0.92 그리고 보도방식은 0.87로 나타났다.

4. 연구결과

1) 국가별 정정보도 기사비율

한국 일간지의 '바로 잡습니다'란과 미국 일간지의 '정정보도문'면을 통해 게재된 두 나라 간의 정정보도 기사의 비율은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한국 일간지의 정정보도 건수는 총 345건(19.9%)으로 미국 일간지의 1,391건(80.1%)과 비교할 때, 한국 일간지의 정정보도 기사비율은 미국 일간지의 약 4배 이상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특히 발행부수 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조선일보』(248건)와 『뉴욕타임스』(446건) 간의 정정보도 기사 건수의 차이에서 『뉴욕타임스』가 거의 두 배 정도 많았으며, 『한겨레신문』(97건)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945건) 간 비교에서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 『한겨레신문』보다 무려 10배 가까이 정정보도 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간지와 비교할 때, 한국 일간지의 정정보도 기사비율이 매우 낮은 원인 중의 하나는 오보를 낸 언론사들이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지 않으려는 비윤리적 사고방식이나 정정보도가 언론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오보인줄 알면서도 이를 묵살하고 어물쩍 넘어가기 때문이다(임병국, 1990). 이와 더불어 두 나라에서 발행되는 일간지의 평균 발행지면수¹⁷⁾를 고려하더라도 미국 일간지가 한국 일간지보다 오보기사의 발굴과 정정보도 기사 게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정정기사 주제별 분석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의 정정보도 기사 중 가장 많이 차지한 주제별

17) 평균 발행지면 수: 『조선일보』, 35면; 『한겨레신문』, 30면; 『뉴욕타임스』, 81면(월~금 발행);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65.81면(월~금 발행)(2006년 기준).

<표 1> 신문별 정정보도 기사 비율

방향/신문	신문	빈도	백분율 (%)
한국 일간지	조선일보	248	14.3
	한겨레	97	5.6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	446	25.7
	크로니컬	945	54.4
합계		1,736	100.0

분야는 사회(30.0%), 문화(16.4%), 그리고 경제(11.0%)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세 분야가 전체 정정보도 기사의 절반 이상(57.4%)을 차지하였다.¹⁸⁾ 이와 대조적으로 정정보도 건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인물·동정(1.5%), 과학(2.9%), 그리고 기타(5.5%)순으로 나타났다.

<표 2>에서 보듯이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는 사회에 관한 정정보도 기사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취재기자에게 있어 사회라는 취재 범주가 다른 주제와는 달리 다소 포괄적일 뿐만 아니라, 정치나 경제 또는 스포츠처럼 취재기자들의 전공이나 전문성을 바탕으로 취재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점도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라고 짐작된다.

두 나라 일간지의 정치기사에 관한 오보 비율의 차이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다.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정치기사와 관련된 정정기사 보도비율은 각각 40건(16.1%)과 20건(20.6%)으로 주제별 오보 건수가 각각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뉴욕타임스』는 31건(7.0%)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94건(9.9%)을 차지해 각각 7번째와 5번째로 나타나 다른 주제와 비교할 때 대체로 낮은 오보 빈도수를 차지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일간지와 한국 일간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하나는 라이프스타일(Lifestyle)에 대한 오보의 차이이다. 우리나라 신문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의 경우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오류기사는 두 신문

18) 두 나라 신문의 주제별 평균 비율임.

<표 2> 주제별 분석내용

(괄호 안의 단위: %)

주제 ▶ 신문 ▼		주제										전체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스포츠	국제	과학	인물 동정	라이프 스타일	기타	
한국 일간지	조선	86 (34.7)	40 (16.1)	37 (14.9)	24 (9.7)	24 (9.7)	19 (7.7)	7 (2.8)	2 (.8)	1 (.4)	8 (3.2)	248 (100.0)
	한겨레	36 (37.1)	20 (20.6)	9 (9.3)	20 (20.6)	2 (2.1)	4 (4.1)	1 (1.0)	0 (.0)	0 (.0)	5 (.0)	97 (100.0)
계		112 (35.4)	60 (17.4)	46 (13.4)	44 (12.6)	26 (7.5)	23 (6.7)	8 (2.3)	2 (.6)	1 (.3)	13 (3.8)	345 (100.0)

주제 ▶ 신문 ▼		사회	문화	경제	스포츠	정치	라이프 스타일	국제	과학	인물 동정	기타	전체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151 (33.9)	80 (17.9)	44 (9.9)	3 (.7)	31 (7.0)	40 (9.0)	36 (8.1)	6 (1.3)	19 (4.3)	36 (8.1)	446 (100.0)
	크로 니컬	248 (26.2)	161 (17.0)	100 (10.6)	127 (13.4)	94 (9.9)	79 (8.3)	49 (5.2)	35 (3.7)	6 (.6)	46 (4.9)	945 (100.0)
	계	399 (28.7)	241 (17.3)	144 (10.4)	130 (9.3)	125 (9.0)	119 (8.6)	85 (6.1)	41 (2.9)	25 (1.8)	82 (5.9)	1,391 (100.0)

* $\chi^2=61.167$, $df=9$, $p<.000$

모두 극소수(1건)인데 비해 『뉴욕타임스』가 40건(9.0%)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이 79건(8.3%)을 차지하여 미국 신문들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에 대한 원인은 한국 일간지의 경우,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신문 면을 별도로 분리하여 제작하지 않는 대신 사회나 문화면 또는 불규칙적인 섹션 면을 통하여 관련 기사를 제한적으로 내보내는 관행이 있다. 이에 비해 미국 일간지는 ‘Dinning & Wine(외식)’, ‘Fashion & Style(유행과 스타일)’, ‘Home & Garden(가정과 정원)’, 그리고 ‘Wedding(결혼)’에 대한 기사를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고정적인 주제 하에 매일 많은 분량의 기사를 신문지면¹⁹⁾을

19) ‘라이프스타일’ 평균 인쇄면 수(『뉴욕타임스』, 11.5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9.85면), 2006년 1월 1일부터 8월 7일까지 기간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발행되는

통하여 제재하고 있다.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두 나라 간의 지면을 통한 기사 게재량의 차이가 보도지면이 많은 미국의 경우 오보의 가능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사 게재량이 적은 한국의 경우 오보기사 빈도수가 매우 낮게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3) 정정기사 유형별 오보 분석

(1) 객관적 오류

전체적인 오보유형을 살펴볼 때, 한국 일간지의 경우 이름(27.8%), 사실관계오류(17.1%), 숫자(17.1%) 그리고 용어와 관련된 오류(16.1%)가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용(0%), 시간(3%), 그리고 혼동(1.1%)에 관한 오류는 매우 적은 오보유형으로 분류되었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유형별 순서와 수량적인 면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미국 일간지의 경우와 비슷하게 이름(21.3%)과 숫자(15.9%)의 오류가 공통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시간(0)과 인용(1.0)에 대한 오류는 두 나라 일간지에서 차지하는 오류의 비율이 매우 미미한 건수로 조사되었다.

한국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름과 관련된 오보가 주류로 96건(27.8%)을 차지하였다. 이름의 종류로는 사람이름, 회사이름, 그리고 지역단체명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 한국 신문기자들은 이들 이름과 관련한 기사에서 작은 실수로 인한 오보가 자주 발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름과 관련된 오류는 정치, 경제, 사회, 스포츠, 국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였다.

먼저 사람이름 자체를 잘못 병기한 경우가 많았다. 예를 들면, 대전 시장 ‘염홍철’을 ‘염홍섭’(『조선』, 20005년 8월 30일), 경북지사 후보 ‘김관원’을 ‘김광원’(『조선』, 2006년 1월 2일)으로, 그리고 ‘서중석’ 의원을 ‘서경석’ 의원(『조선』, 2006년 4월 29일)으로 잘못 표기한 경우이다. 또한 지역이름과 관련

신문 기준. 주말(토요일) 신문은 『뉴욕타임즈』, 12.7면;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9.91면(각 신문사 편집장과 이메일 인터뷰, 2006년 8월 7일).

한 오류도 자주 눈에 띄었다. ‘경기도 연천’을 ‘강원도 연천’으로(『조선』, 2005년 8월 6일), ‘전남 진도’를 ‘경남 진도’로(『조선』, 2006년 1월 11일), 그리고 ‘충북 괴산’을 ‘충남 괴산’(『조선』, 2006년 1월 20일) 등으로 표기한 경우였다. 마지막으로 외국어와 관련된 오류(국제)로는 프랑스 ‘제느미날’은 ‘몽수’(『조선』, 2006년 5월 1일)로, ‘소(小)림사’는 ‘소(少)림사’(『조선』, 2005년 9월 14일)로, 일본 발음인 ‘쇼쇼인’은 ‘쇼소인’(『조선』, 2005년 11월 15일)으로 ‘에바름 고리아’는 ‘에바름 고리아’(『조선』, 2006년 2월 27일)로 바로잡아야 할 오보라고 정정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미국 일간지의 경우 유형별 오류에 관한 한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은 유형별 정정보도 건수 면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먼저 『뉴욕타임스』의 경우 혼동(23.5%), 이름 108건(24.5%), 숫자 86건(19.3%) 그리고 철자오류 건수 60건(13.5%) 순으로 조사되었다. 혼동(misidentification)²⁰⁾이란 취재한 기사 내용에 대하여 기자가 잘못알고 기사화하여 오보를 일으키는 경우이다. 혼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정정보도 기사는 미국 일간지의 경우 특히 스포츠기사와 관련하여 자주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주된 원인은 미국에서는 매일 수많은 스포츠경기가 열리는데 특히 야간 경기는 몇 시간 후에 신문제작에 돌입해야 하는 스포츠 기자들이 마감시간에 쫓겨 사실 확인이 부족한 채 보도한 경우 발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도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형태를 보였는데, 혼동에 대한 오류가 전체 오류건수 945건 중 199건(21.1%)으로 5분의 1을 이상을 차지하여 가장 높은 오보비율로 나타났다. 이어서 이름이 188건(19.9%), 숫자 136건(14.4%), 그리고 철자 오류가 101건(10.7%)순으로 많았다. 이외는 대조적으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인 오보 유형별로는 『뉴욕타임스』와 비슷한

20) 예를 들면, In Monday's Sporting Green, an article about the Giants incorrectly described Pittsburgh Pirates first baseman Sean Casey, who is an left-handed batter (SFC, 2006년 6월 28일). (월요일에 발행된 스포츠 그린 면에 피츠버그 파이어릿츠 팀의 1루수인 셴 케이스를 왼손잡이 타자라고 잘못 기술한 자이언츠에 관한 기사)와 같이 ‘A를 B로 잘못 알다’라는 경우에 해당한다.

<표 3-1> 객관적 오류 분석내용

(괄호 안의 단위: %)

오류 ▶ 신문 ▼		객관적 오류											기타
		이름	사실관계오류	숫자	용어	문법	날짜	장소	철자	혼동	시간	인용	
한국 일간지	조선	74 (29.8)	39 (15.7)	42 (16.9)	43 (17.3)	6 (2.4)	10 (4.0)	7 (2.8)	8 (3.2)	4 (1.6)	1 (.4)	0 (.0)	1 (.4)
	한겨레	22 (22.7)	20 (20.6)	17 (17.5)	13 (13.4)	9 (9.3)	3 (3.1)	3 (3.1)	1 (1.0)	0 (.0)	0 (.0)	0 (.0)	2 (2.1)
계		96 (27.8)	59 (17.1)	59 (17.1)	56 (16.1)	15 (4.3)	13 (3.7)	10 (2.8)	9 (2.6)	4 (1.1)	1 (.3)	0 (.0)	3 (.9)

오류 ▶ 신문 ▼		혼동	이름	숫자	철자	날짜	장소	인용	사실관계오류	용어	문법	시간	기타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105 (23.5)	108 (24.2)	86 (19.3)	60 (13.5)	7 (1.6)	33 (7.4)	3 (.7)	0 (.0)	0 (.0)	2 (.4)
크로 니컬	199 (21.1)		188 (19.9)	136 (14.4)	101 (10.7)	91 (9.6)	41 (4.3)	11 (1.2)	11 (1.2)	8 (.8)	6 (.6)	0 (.0)	49 (5.2)
계	304 (21.9)		296 (21.3)	222 (15.9)	161 (11.6)	98 (7.0)	74 (5.3)	14 (1.0)	11 (.8)	8 (.6)	8 (.6)	1 (.0)	58 (4.3)

사실관계오류와 인용오류가 각각 11건씩(1.2%)으로 나타났고, 문법 오류는 6건(6%), 그리고 시간과 관련된 오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간에 가장 두드러진 유형별 오보의 특징은 사실관계 오류²¹⁾이다. 사실관계 오류는 취재내용에 대하여 기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기사화한 경우 발생하는 오보이다. 즉, 기사의 컨텍스트

21) 예를 들면, ‘정부 對北 독자노선 추진’ 기사에서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한양대 특강에서 “6자회담이 결렬될지라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원조 및 협력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부분에 대해 통일부는 이 장관이 “북핵, 긴장완화, 경험은 순환적으로 함께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북핵문제가 안 풀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알려와 바로 잡습니다(『조선일보』, 2006년 5월 13일).

(context)에 대하여 기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취재기사 내용을 기자 자신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한 경우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이다.

사실관계 오류는 취재기자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해야만 한다는 신문사의 윤리강령²²⁾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또한 사실관계 오류의 위험성은 해당 신문사와 악의적인 관계의 취재대상이나 단체를 취재한 기사내용을 의도적으로 기사내용을 왜곡하여 보도할 수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다시 말해, 나중에 그 취재 대상이 오보에 대하여 항의하면 애당초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또는 사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기자의 오해가 있었다는 식으로 변명하거나 간단히 정정보도문을 실어주는 식으로 처리하면서 이미 크게 실추된 상대의 명예나 신용에 대하여 별다른 피해보상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실관계 오류는 한국일간지가 59건(17.1%)으로 미국일간지의 11건(0.8%)에 비해 압도적인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 기술적 오류

오보유형별 분류에서 기술적 오류란 신문 기사를 취재하거나 보도할 때 기자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이나 또는 기술적용이 원인이 되어 발행한 오류(due to technological and the application of technology)의 유형을 의미한다(Wimmer, 2004). 기술적 오류 면에서 한국일간지와 미국일간지들은 대체로 미미한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국신문의 경우 신문지면의 편집기자의 실수로 신문의 사진이 뒤바뀌거나 다른 사진이 실리는 등 보도사진과 관련된 오보로 인한 정정보도 건수는 4건(1.4%)으로 나타났고, 신문의 도표 또는 헤드라인이 바뀌는 오류와 관련된 정정보도 건수는 5건(1.3%)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매우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미국 일간지는 캡션이 바뀌거나 오류가 있는 등 캡션과 관련된 정정보도 건수가 89건(6.5%)으로 나타나 한국 일간지보다 2배 이상 높은

22) 신문윤리강령에는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제4조).

<표 3-2> 기술적 오류 분석내용

(괄호 안의 단위: %)

오류 ▶ 신문 ▼		기술적 오류					전체
		캡션	도표	사진	자료빠짐	크레딧	
한국 일간지	조선	7 (2.8)	4 (1.6)	2 (.8)	0 (.0)	0 (.0)	248 (100.0)
	한겨레	3 (3.1)	1 (1.0)	2 (2.1)	1 (1.0)	0 (.0)	97 (100.0)
계		10 (2.9)	5 (1.4)	4 (1.1)	1 (.3)	0 (.0)	345 (100.0)

오류 ▶ 신문 ▼		캡션	크레딧	사진	도표	자료빠짐	전체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20 (4.5)	7 (1.6)	1 (.2)	4 (.0)	0 (.0)	446 (100.0)
	크로니클	69 (7.3)	21 (2.2)	8 (.9)	5 (.5)	1 (.1)	945 (100.0)
계		89 (6.5)	28 (2.0)	9 (.6)	9 (.6)	1 (.0)	1391 (100.0)

* $\chi^2=512.727$, $df=17$, $p<.000$

비율로 파악되었으며, 크레딧라인과 관련된 정정보도 기사도 28건(2.0%)으로 조사돼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한국 신문에 비해 대체로 많은 오류건수를 보여주었다. 그 이외 신문의 인쇄 과정 중 기계나 장비의 오작동으로 인하여 보도 자료가 빠지는 오보가 발생한 경우는 한국과 미국 일간지가 각각 1건씩으로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4) 오보의 발생원인 분석

한국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이 오보의 발생원인면에서 비슷한 형태를 보였다. 신문사별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조선일보』의 경우 확인 소홀,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기 그리고 취재원 오보로 인한 발생원인 순으로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 더불어 확인 소홀로 인한 오보가 전체 248건 중 170건(68.5%)으로 약 3분의 2를 넘어섰으며, 기사 작성 및 편집상의 오류 비율도 74건(29.8%)으로 상당히 높은 수치로 파악되었다. 두 발생원인인 기사 작성 및 편집상의 오류와 확인소홀로 인한 오보비율이 전체 248건 중 244건(98.3%)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신문』의 오보 발생원인은 『조선일보』와 상당히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기사 확인 소홀이 67건(69.1%)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기사 작성 및 편집상 오류가 29건(29.9%)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외신 기사번역 오보가 한 건으로 집계되었으며 다른 발생 원인으로 인한 오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인 경우 오보 발생원인은 한국 일간지와 대체로 비슷한 경우로 나타났다. 확인 소홀로 인한 오보 건수가 한국 일간지의 평균 비율(68.8%)보다 다소 더 높은 비율인 331건(74.2%)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어서 기사작성 및 편집으로 인한 오보건수가 97건(21.7%)을 차지했다. 그 이외 발생원인인 전문성 결여 7건(1.6%), 자료 인터뷰 8건(1.8%), 취재원 오보 2건(4%), 일방 의견보도로 인한 오보 1건(2%) 등 대체로 낮은 비율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오류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의 경우 『뉴욕타임스』와는 대조적으로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류가 가장 많은 오보 발생 원인으로 나타났다. 총 948건 중 675건(71.4%)으로 조사되었다. 이어서 확인 소홀로 인한 정정보도 건수가 252건(26.7%)이었으며, 전문성 결여가 10건(1.1%)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 취재원에 의한 오보 2건(3%), 자료 및 인터뷰 인용 부주의로 인한 정정보도 2건(2%) 등은 매우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표 4> 오보 발생원인 분석내용

(괄호 안의 단위: %)

원인 ▶ 신문 ▼		발생원인							전체
		확인 소홀	가사작성 및 편집	취재원 오보	번역 오보	전문성 결여	자료 및 인터뷰	일방 의견	
한국 일간지	조선	170 (68.5)	74 (29.8)	4(1.6)	0 (.0)	0 (.0)	0 (.0)	0 (.0)	248 (100.0)
	한겨레	67 (69.1)	29 (29.9)	0 (.0)	1 (1.0)	0 (.0)	0 (.0)	0 (.0)	97 (100.0)
계		237 (68.7)	103 (29.9)	4 (1.1)	1 (.3)	0 (.0)	0 (.0)	0 (.0)	345 (100.0)

원인 ▶ 신문 ▼		가사작성 및 편집	확인 소홀	전문성 결여	자료 및 인터뷰	취재원 오보	번역 오보	일방 의견	전체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97 (21.7)	331 (74.2)	7 (1.6)	8 (1.8)	2 (.4)	0 (.0)	1 (.2)	446 (100.0)
	크로 니컬	675 (71.4)	252 (26.7)	10 (1.1)	2 (.2)	3 (.3)	3 (.3)	0 (.0)	945 (100.0)
계		772 (55.5)	583 (41.9)	17 (1.4)	10 (.7)	5 (.3)	3 (.2)	1 (.0)	1391 (100.0)

* $\chi^2=62.670$, $df=6$, $p<.000$

5) 정정기사 보도방식

오보로 인하여 발생한 정정보도문에 게재된 정정기사의 보도방식을 살펴 보면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보도방식 중 단 두 종류의 형식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고 확실화된 정정기사 보도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신문의 경우 먼저, 제1유형 <날짜+면+보도내용+오보내용+정정내용>의 보도형태가 총 345건 중 330건(95.6%)으로 절대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2유형인 <날짜+면+보도내용+오보유형+오보원인+오보내용+

정정내용+사과>의 보도 방식이 15건 (4.5%)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신문의 경우, 제4유형 <보도내용+날짜+면+오보유형+오보원인+오보내용+정정내용> 보도 방식이 총 1,391건 중 883건(63.5%)로 가장 높은 비율²³⁾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3유형인 <보도내용+날짜+오보유형+오보원인+정정내용>이 429건(30.3%)으로 뒤를 이었고, 제6유형이 33건(1.7%) 순으로 나타났다.

신문사별로 살펴보면,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은 정정보도 방식의 비율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제1유형의 비율이 『조선일보』는 238건(96.0%), 『한겨레』는 92건(94.8%)으로 나타나 한국 일간지 모두 제1유형의 정정보도 방식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머지는 제2유형으로 『조선일보』 10건(4.0%)과 『한겨레』 5건(5.2%)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일간지는 위의 두 형태의 정정보도 유형이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뉴욕타임스』는 제3유형이 전체 446건 중 421건(94.4%)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이어서 제2유형이 25건(5.6%)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정정보도 기사 방식 유형 중 제1유형과 제2유형의 두 가지 보도형태만을 사용하여 단순하게 정정보도문을 게재했던 한국일간지의 경우처럼, 『뉴욕타임스』도 두 가지 유형의 정정보도 방식만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의 정정보도 방식의 유형은 다른 일간지들과 비교할 때,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대체로 다양한 방법의 보도형태들이 사용되어 졌다. 가장 자주 쓰이는 보도방식은 제4유형으로 총 945건 중 883건(93.4%)을 차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제6유형(오보내용 미포함)이 33건(3.5%)을 차지하였고, 이어서 제5유형(정정내용 미포함)과 제7유형(오보내용과 정정내용 미포함)이 각각 8건(8%) 씩으로 뒤를 이었다. 제8유형(날짜 미포함)도 5건(5%)을 차지하였다.

23) 두 신문의 평균비율이다.

<표 5-1> 정정보도 기사작성 방식별 분포

한국신문	날짜	면	보도내용	오보유형	오보원인	오보내용	정정내용	사과
제1유형	○	○	○	×	×	○	○	×
제2유형	○	○	○	○	○	○	○	○

미국신문	보도내용	날짜	면	오보유형	오보원인	오보내용	정정내용	사과
제3유형	○	○	○	○	○	×	○	×
제4유형	○	○	○	○	○	○	○	×
제5유형	○	○	○	○	○	○	×	○
제6유형	○	○	○	○	○	×	○	○
제7유형	○	○	○	○	○	×	×	○
제8유형	○	×	○	○	○	○	○	○

출처: 문종대(2001),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언론중재』, 언론중재위원회, 여름호, pp.4~19 참조 수정하여 사용하였음.

<표 5-2> 정정보도 기사유형 분석내용

(괄호 안의 단위: %)

유형 ▶ 신문 ▼		기사유형								전체
		1유형	2유형	3유형	4유형	5유형	6유형	7유형	8유형	
한국 일간지	조선	238 (96.0)	10 (4.0)	0 (.0)	0 (.0)	0 (.0)	0 (.0)	0 (.0)	0 (.0)	248 (100.0)
	한겨레	92 (94.8)	5 (5.2)	0 (.0)	0 (.0)	0 (.0)	0 (.0)	0 (.0)	0 (.0)	97 (100.0)
계		330 (95.6)	15 (4.5)	0 (.0)	0 (.0)	0 (.0)	0 (.0)	0 (.0)	0 (.0)	345 (100.0)

유형 ▶ 신문 ▼		4유형	3유형	6유형	2유형	5유형	7유형	8유형	1유형	전체
		미국 일간지	뉴욕 타임스	0 (.0)	421 (94.4)	0 (.0)	25 (5.6)	0 (.0)	0 (.0)	
	크로 니컬	883 (93.4)	8 (.8)	33 (3.5)	0 (.0)	8 (.8)	8 (.8)	5 (.5)	0 (.0)	1391 (100.0)
계		883 (63.5)	429 (30.8)	33 (2.4)	25 (1.8)	8 (.6)	8 (.6)	5 (.3)	0 (.0)	1391 (100.0)

* $\chi^2=1439.000$, $df=8$, $p<.000$

6. 결론

오늘날 우리나라 일간지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일간지에 정정보도 기사가 게재되고 있다. 일간신문의 정정보도문은 독자들로부터 언론사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문에 대한 호감을 증진(한국언론재단, 2001)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일간지인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과 미국 일간지인 『뉴욕타임스』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을 통해 보도된 정정기사에 대한 성격과 특성을 비교 분석해 살펴 본 것이다. 그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일간지에 게재된 정정보도 기사건수보다 미국 일간지에 실린 전체적인 기사건수 양이 훨씬 많았다.²⁴⁾ 특히 구독자 수에서 큰 차이가 없는 『한겨레신문』(97건)보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945건)이 무려 10배 가까이 정정보도 기사 건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는 미국 언론사와는 달리 한국 언론사는 오보를 심각한 공신력의 실추라고 여기며 정정보도가 언론사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생각 때문에 정정 기사를 보도하는데 인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불어 한겨레신문의 평균 발행 지면수와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의 평균 지면수를 비교할 때, 미국 일간지는 한국 일간지보다 정정보도 기사 확인과 게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취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주제별 정정보도 기사 면에서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간지는 사회(36.0%), 정치(18.3%), 그리고 경제(12.1%)와 관련된 정정보도 비율은 미국 일간지보다 높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간지는 문화(17.4%), 라이프스타일(8.6%), 스포츠(7.0%), 그리고 인물·동정(2.4%)에 대한 정정보도 기사 건수는 한국 일간지의 기사 건수보다 많았다.

특히,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의 인물·동정과 라이프스타일에 관한 정

24) 4개 일간지 평균 발행 지면수를 정정보도 기사 건수로 나눈 값을 기준으로 한국 신문, 5.3개; 미국 신문, 9.5개임.

정보도 기사 건수의 차이는 눈여겨볼 만하다. 인물·동정의 경우, 미국 신문은 평균 25건(2.4%)으로 한국 신문의 평균 2건(4%)보다 6배 이상 높은 비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두 나라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의 지면구조의 차이인 ‘부고’란 존재의 차이에서 그 원인²⁵⁾을 찾을 수가 있겠다.

셋째, 유형별 분석에서도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간에 차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이름(26.2%), 사실관계 오류(18.1%) 그리고 용어(15.8%) 부분에서 오보비율이 높았다. 이에 비해, 미국 일간지는 숫자(33.7%), 철자(12.1%), 그리고 낱짜(5.6%) 등을 살펴볼 때, 주로 숫자와 관련하여 오류가 자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혼동(misidentification)은 미국 일간지(22.3%)가 한국 일간지(8%)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오류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간에 가장 두드러진 유형별 오보의 특징은 사실관계 오류이다. 사실관계 오류는 기자가 취재내용에 대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보도한 경우 발생하는 오류이다. 사실관계 오류는 한국 일간지(17.1%)가 미국 일간지의 평균(0.8%)에 비해 압도적인 비율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⁶⁾

25) 미국 일간지에는 부고란을 고정란으로 두고 매일 규칙적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이력과 가족관계, 그리고 장례절차와 관련된 기사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일간지의 경우 규칙적으로 부고가 게재되고 있는 신문의 고정란은 없으며 사회면에 불규칙적으로 게재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라이프스타일에 대하여 ‘외식(Dinning & Wine)’, ‘패션(Fashion & Style)’, ‘가정과 정원(Home & Garden)’, 그리고 ‘결혼(Wedding)’에 관한 소재로 매일 많은 양의 기사를 실고 있는 미국 일간지는, 적은 양의 기사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는 섹션 면을 통해 게재하는 한국 일간지에 비해 오보건수가 많은 점이 주원인으로 짐작된다.

26) 이에 대해 미국 신문에서 사실관계오류건수가 적다는 것은 미국 신문기자들은 보도기사를 작성하고 보도할 때, 기사에 대한 자신의 주관적 관점을 배제시키면서 가능한 한 기사를 객관적으로 균형 있게 보도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기술적인 정정보도 비율 면에서 한국 일간지는 보도사진이 바뀌거나 도표 또는 헤드라인이 바뀌는(1.3%) 오류 비율 면에서 미국 일간지(7%)보다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 일간지는 캡션이 바뀌거나(6.1%), 크레딧

넷째, 정정보도 발생원인 면에서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 간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기사의 확인소홀로 인한 원인이 전체 원인 중 약 3분의 2(68.7%) 이상을 차지하였고,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류가 나머지 원인의 대부분(29.9%)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확인소홀로 인한 정정보도인 경우, 보도 자료나 뉴스원과 인터뷰과정에서 언급된 기사내용 중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뉴스원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사용하여 확인 작업이 있었다라면 충분히 오류를 예방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들이 많았다. 특히 개인이나 회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막대한 금전적인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보도 전에 반드시 거듭 확인해야 되는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이에 비해, 미국 일간지의 경우, 한국 일간지와는 반대로 기자나 편집자의 단순실수에 의하여 발생한 기사작성 및 편집상 오류로 인한 오류발생 원인이 전체의 절반(51.2%)을 넘어 가장 많은 원인으로 파악되었으며, 나머지 원인의 대부분은 확인소홀로 인한 오기(46.1%)로 조사되었다.

다섯째, 한국 일간지와 미국 일간지는 정정보도 기사 보도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 일간지의 경우, <날짜+면+보도내용+오보유형 ……> 순으로 전개되는데 비해, 미국 일간지는 <보도내용+ 날짜+면+ 오보유형 ……> 형식으로 게재되었다. 또한 한국 일간지의 경우, 정정보도문의 보도 방식은 오직 두 가지 형태의 유형만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가지 방식 중 가장 전형적인 형태는 제1유형으로 <날짜+면+보도내용+오보내용+정정내용>의 형식보도로 절대다수(95.4%)를 차지하였다. 이에 비해 미국 일간지의 경우 비록 낮은 수의 비율이나마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정정보도문의 보도 방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장 올바른 정정보도 기사 보도방식은 <보도내용(제목)+날짜+면+오보유형+오보원인+오보내용+정정내용+사과>의 유형이다. 오보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 피해를 당한 당사자뿐만 아니라 신문 구독자들

라인의 잘못(1.9%)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여 한국 일간지의 비율보다 높은 오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에게 사과를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어떤 이유로 오류나 오보가 발생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언론인으로서 기자가 취해야 할 윤리적인 태도이기 때문이다 (문종대, 2001) 이러한 정정보도 방식은 신문에 대한 독자의 신뢰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신문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한국 일간지의 보도유형을 분석해보면 정정 내용과 더불어 사과나 유감을 표현하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10건(4.0%)과 『한겨레신문』 5건(5.1%) 등 한국 일간지의 경우 비록 낮은 비율이지만 정정 내용과 더불어 피해 대상에게 사과의 말을 포함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일보』의 경우, 특히 유명한 정치가와 관련된 오보기사에서 사과나 유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자주 있었고, 『한겨레신문』은 사회나 문화면과 관련된 오보기사에 유감을 표현하는 정정보도 건수가 있었다. 이에 반해 미국 신문인 『뉴욕타임스』는 정정보도문에 사과나 유감의 뜻이 포함된 기사가 25건(5.6%)으로, 사과나 유감을 내포한 정정보도문이 한 건도 없는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과 비교할 때 독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면에서 대조를 이루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일간지의 정정보도문 효과적인 개선을 위한 제안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정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오보기사는 일정한 고정란에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국에서는 언론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 정정보도를 위한 고정란을 설치해 두고 있다(임병국, 1990). 이에 비해 우리나라 일간지는 정정보도를 위한 고정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정정보도문의 위치도 그날 신문에 실리는 중요한 기사의 양이나 특집기사 등에 따라 좌우되기도 한다. 더불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의 원상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정정기사의 활자크기도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정정보도 기사의 활자는 원기사의 크기와 같아서 구분이 어려운데 활자 크기와 두께를 원기사보다 크게 처리해서 독자들이 정정보도내용을 빠르고 쉽게 알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둘째, 사실관계오류에 대한 비율을 줄이는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사실관계오류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은 취재기사에 대하여 기자 자신의 자의

적인 해석으로 인한 보도의 객관성 상실이다. 기사에 대한 취재기자의 주관성 개입은 기사가 오보로 판명될 확률이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심각한 인격권 또는 금전적 피해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이며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기자의 재교육이 필요하다.

셋째, 우리나라 정정보도 기사를 살펴볼 때, 정정보도 기사에 사과나 유감을 나타내는 정정기사 비율이 매우 낮았다(4.5%). 이는 피해자의 의견을 실어 주는 반론과는 달리 정정보도는 그 정정주체가 언론사이므로 이같은 정정과 함께 피해자와 독자에게 사과의 뜻이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과나 유감을 포함한 정정보도 기사는 대체로 유명 정치인이나 경제인 또는 대기업 등 소위 힘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 정정보도 기사가 대부분이었다. 신문지면이 허락되는 한 힘없는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오보라면 정정보도 기사에 이들을 상대로 반드시 사과나 유감을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²⁷⁾ 이는 기자가 전문 언론인으로서 자신의 도덕적 또는 윤리적 책임을 다할 뿐만 아니라, 신문의 질을 한층 높이는 데 모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오류기사가 게재된 시점부터 정정기사가 보도된 시점까지 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²⁸⁾ 언론사는 오보로부터 비켜갈 수는 없다. 그러나 정정 기사를 게재한다고 해도 오보를 접한 독자가 관련 정정보도문을 반드시 읽는다는 보장도 없고, 머릿속에 일단 각인된 기억의 흔적이 정정 기사 한두 줄로 쉽사리 지워지지도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보에 대한 신속한 정정보도는 오보로 인한 기사주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27) 일본신문노련은 “오보로 인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있는 경우 지면으로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오보에 이른 검증 기사를 게재, 재발방지책을 명확히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6항), 그 해설에는 “신속하고 상세하게 정정기사나 사과문을 게재해야 하며 오보를 오보로 인정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것만큼 더 깊은 죄가 없다”고 밝히고 있음(김옥조, 『미디어윤리』, 2001, pp.222~223 재인용).

28) 오류기사 발생시점부터 정정보도문이 게재되는 시점까지 걸리는 평균기간은 『조선일보』, 3.4일; 『한겨레신문』, 3.5일; 『뉴욕타임스』, 10.0일; 『샌프란시스코 크로니컬』, 5.13일이다(2006년 기준).

데 언론사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Ⅰ 참고문헌

- 김나연 (2003). 『2002 한일 월드컵 보도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과 일본 일간지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성남 (1988). 언론피해와 구제. 『언론중재』, 28호, 50~65.
- 김옥조 (2001). 『미디어윤리』. 서울: 중앙 M&B.
- 뉴욕타임스 (1987.4.28). 『김옥조, 미디어윤리』(40쪽), 중앙 M&B. 2001 재인용.
- 리영희 외 (2005.6.4). 한겨레 제2창간/창간원로 간담회. 『한겨레신문』, 28.
- 류재훈 (2004.5.28). 미국 언론 신뢰도 위기 심각. 『한겨레신문』, 11.
- 문종대 (2001). 언론보도의 신뢰성과 전문성. 『언론중재』(4~19쪽), 언론중재위원회, 2호.
- 박재영 (2005). 공정성 실천적 의미: 문화일보 2002년 대선 보도의 경우. 『한국언론학보』, 제2호, 168~195.
- 서정우 (2000.9). 오보의 발생과 대책.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토론회 주제논문집』.
- 송용희 (2005). 한국 종합일간지 기사의 사실성 입증 기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와 한겨레신문 사회면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3호, 80~104.
- 심 훈 (2004). 1995년 북한 기아에 대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의 보도 분석: 허만과 촘스키의 프로파간다 모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1호, 57~83.
- 임병국 (1990). 『한국 일간신문의 오보와 그 구제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오인환 (1982). 언론침해의 원인별 유형, 『언론중재』, 3호. Available: http://www.pac.or.kr/html/data/dt_zine_view.asp?seqid=13
- 우병동 (1994). 언론이 보여주는 반진실의 위험. 『신문과 방송』, 1994년 7월호, 120~121.
- _____ (1996). 뉴스 보도의 정확성 연구: 오보 발생의 구조를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11호, 34~65.

- 이창근 (1993). 『수용자 의식조사: 제6회 미디어 영향과 신뢰도 조사』(연구조사 93-5).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이행원 (2001). 『취재보도의 실제』. 서울: 나남.
- 이효성 (1992). 공정보도의 이상과 현실. 『저널리즘 논단』, 12월호, 233~257.
- 조영현 (2002). 『언론수용자 의식조사: 제11회 미디어 영향과 신뢰도 평가』. (조사분석 2002-02).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정진걸 (1997). 오보와 언론의 신뢰. 『부경언론학회 창간호』(201~229쪽).
- 장기영 (2000). 『언론인의 직업, 윤리의식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호순 (2005). 『언론의 자유와 책임』. 서울: 한울아카데미.
- 차배근, (1989). 오보의 발생원인과 정정책임. 『신문과 방송』, 7월호, 4~6.
- 최동섭 (1998). 『오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언론관행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서강대학교 대학원.
- _____ (1998). 『오보의 발생 원인에 대한 연구: 언론관행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7쪽 재인용.
- 팽원순 (1987). 『보도와 기자윤리, 언론의 직업윤리』. 한국언론연구원.
- _____ (1989). 『현대 신문방송보도론』. 서울: 범우사.
- 한국언론연구원 (1997). 『언론인의 책임과 윤리-제5회 전국기자 직업의식 조사』. (연구조사 97-2).
- Peterson, T. (1956). *Four Theories of the Press*. 강대인 역 (1996). 『언론의 4이론』. 서울: 나남.
- Berry, F. (1967). A Study of Accuracy in Local News Stories of Three Dailies, *Journalism Quarterly*, 44, 482~490.
- Greenberg, B. & Razinsky, E. (1966). Some Effects of Variations in Message Quality, *Journalism Quarterly*, 45, 486~492.
- Lawrence, G. & Grey, D. (1964). Subjective Inaccuracies in Local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41, 753~757.
- MacBride Commission (2003). *Many Voices, One World*,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Inc.
- San Francisco Chronicle. Wikipedia, Available: http://en.wikipedia.org/wiki/The_

San_Francisco_Chronicle.

Singletary, M., Ciles, B. & Warne, M. (1977). How Editors View Accuracy in News Reporting, *Journalism Quarterly*, 54, 1977, 283~298.

Singletary, M. & Carrage, K. (1980). Subjective Error in Written Message, *Journalism Quarterly*, 57, 432~437.

U. S. Audit Bureau of Circulation, <http://www.infoplease.com/ipea/A0004420.html>

Wimmer, T. (2003). Correct This! A Content Analysis of 2003 Errors. A Paper Presented for the Association for Education in Journalism and Mass Communication Annual Convention, Toronto, Canada, August 2004.

(최초 투고 2006.11.8, 최종 원고 제출 2007.1.8)

A Study on the Corrections in Selected Korean and American Newspapers

Yang-June Im

Lecturer

Dept. of Mass Communication, Kyongsung Univ.

This study explores the corrections on the Korean and the U. S. daily newspapers for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through the content analysis. For the research, Chosun Ilbo, Hankyoreh Shinmun, The New York Times and The San Francisco Chronicles are selected. The main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n and American newspapers are as follows:

Firstly, the average number of newspaper errors in Korean dailies are as half as little of those in the U. S. dailies.

Secondly, regarding the subcategory of mistakes, the largest thematical number is the societal matters(36.0%), followed by politics(18.3%) and economy(12.1%) for the Korean newspapers. By contrast, errors in culture(17.4%) is the most frequently made by the American newspaper reporters and editors, followed by lifestyle(8.6%), and sports(7.0%).

Thirdly, in terms of content of mistakes, errors in names(26.2%) that occurred the most, followed by misidentifications(18.1%) and mis-attribution(15.8%) for the Korean dailies; the errors in numbers(33.7%), spelling and typographical errors(12.1%) and date(5.6%) for the U. S. dailies.

Fourthly, one of the critical reasons that mistakes occurred because Korean reporters are lack of double checking the stories; the U. S. reporters simply by overlooking the articles.

Finally, the Korean newspapers make use of only two kinds of correction formats, while the U.S. newspapers use six different correction formats for their newspaper readers.

Key words: Newspaper corrections, Media credibility, Accuracy, Subjective Errors, Objective Errors.